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Fax (510) 639-4842

thmschae@yahoo.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세리와 창녀가 당신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제 1독서] 예제18,25-28

[화답송] 시편25(24),4-5,6-7,8-9(◎6-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필리2,1-11<또는>2,1-5>

[복음 환호송] 요한10,27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마태21,28-32

성가	8시 미사	입당 461	봉헌 510 220	성체 182 175	파견 285
	11시 미사	입당 461	봉헌 510 220	성체 182 175	파견 285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6주일(9월 28일)		연중 제27주일(10월 5일)		연중 제28주일(10월 12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김말가리다(미숙)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이바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심미카엘(태규)	이바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심헬레나(승화)	정스텔라(애리)	영어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교황님을 추억하면서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인천교구에서 사회복지 소임을 맡은 이상희 신부입니다. 지난여름 우리나라를 방문해주신 교황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교황님의 방한은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잔치였습니다. 교황님이 걸어가시는 여정을 통해서 사회의 각 개인과 공동체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교황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황님이 방한 중 걸어가신 여정은 사랑의 여정이었고, 위로의 여정이었고,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교황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사제들도 고통 받는 사람들, 버림받고 상처받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교황님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과 신앙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하는지,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는 교황님의 말씀이 가슴 한편에 커다란 울림으로 자리합니다.

사회복지 소임을 하면서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한 사제에게 교황님은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어디서나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말입니다

교황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

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내 작은 가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제의 그러한 조그마한 사랑의 나눔이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옵니다. 교황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 21, 31)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복음, 듣기에 부담되는 불편한 말씀?

언젠가 신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구자범님이 쓴 ‘좋은 귀’ 를 가진 지휘자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좋은 귀’ 를 가진 지휘자라면 자기 연주가 조금만 틀려도 대번에 그것을 잡아내고 지적할 테니 매번 긴장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자는 실수로 틀린 소리가 났을 때도 곧바로 그 단원을 쳐다보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본당신부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이 됩니다. 신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一喜一悲),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이 생각나서 혼자 슬며시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의 편안함’ 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주는 적당히 ‘무딘 귀’ 를 가진 지휘자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만한 ‘무난한 지도자’ (사목자)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대할 때마다 성경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 (해방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깔끄러운 말씀’ 으로 들리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번째 독서에 나오는 에제키엘 예언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는 어느 시대나 기득권자들에게 반대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늘 입바른 얘기로 돌직구를 날리는 그들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오늘 복음 또한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예’ 라고 대답만 하고, 전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변방의 사람들’ 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마태 21,31 참조)이라는 소식이 쉽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 때나 강의 때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행동원칙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의 장벽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아주 절망적인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혹은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하면 될 거 아니냐?” 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출세 지향적 그리고 성과주의, 일등주의를 부추기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전 교리 때 나누었던 예수님의 행동원칙, 뒤처진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연대(連帶)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지킬 교리’ 가 과연 실생활에서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까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원칙이 더더욱 필요하고 유효한 ‘목마른 시대’ 는 아닐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인지, ‘불편한 말씀’ 인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서울 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글\_1요한 4,12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창녀, 세리 그리고 리스트

저는 KBS 제1FM에서 한 시간 정도 ‘법과 음악’ 이라는 코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일 년여 넘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작곡가들의 법적 소송과 얽힌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음악을 소개하거나,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에 얽힌 법 이야기를 통해 음악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칭찬을 해주는 청취자도 많았지만, 때로는 제가 ‘리하르트 바그너’ 나 ‘프란츠 리스트’ 와 같은 바람둥이 작곡가들의 생애를 너무 미화한다고 일침을 주는 청취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는 말씀을 듣고서, 청취자가 비판했던 리스트(Ferenc Liszt)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물론 리스트의 생애를 보면 일면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리스트는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어느 백작부인과 야반도주를 하여 생긴 자식들입니다. 리스트는 백작부인과 헤어진 후 진실한 사랑(공작부인)을 만나지만, 무려 14년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 하는 혼인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들과 딸이 사고로 죽고, 결혼식 하루 전에 결혼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 리스트는 낮은 품계의 성직자(부제품 아래로 현재는 없어졌음)로 서품을 받고, 공작부인은 수녀원에서 기도생활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공작부인은 한 나라의 영토만큼이나 광대한 러시아의 영지를 상속한 여인이었기에 문제였습니다. 영지를 둘러싼 주변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분쟁으로 로마 가톨릭 종교재판 소는 결혼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리스트는 당대 최초의 피아노 연주 거장으로서 ‘마니아’ 라는 팬 그룹을 끌고 다닌 잘생긴 스타였습니다. 리스트는 피아노 거장으로서 기교적이고 난해하기까지 한 피아노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에게는 성당의 14처 한 곳 한 곳마다 감

상을 적은 곡과 주기도문의 곡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음악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신을 절제하면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청소년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생의 더할 수 없는 나락에까지 떨어진 사람이 절망 속에서 안타깝게 갈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이런 분들 또한 삶의 귀감이 되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는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불행을 겪으면서, 평소 좋아하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울며, 애통하며, 고뇌하며, 두려워하며’ 를 그대로 인용하여 변주곡을 작곡합니다.

말 그대로 울면서 애통하고 고뇌하였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였을 리스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기부의 실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리스트의 기부가 건물의 명판에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리스트는 당대의 기부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의 창녀와 세리 말씀을 들으면 문득 리스트가 생각나고, 그의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음악으로 컷전에 맴돕니다.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도행전

### 성경산책

### 사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의 두 번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테오필로스라는 동일한 수신인에게 보내진 작품이고,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루카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활동을 통한 교회의 발전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티아 사도를 뽑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 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제 사도들은 성령과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우선 예루살렘의 공동체(사도 1,15-8,3)에 대해 다룹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신앙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모습을 전하고(사도 2,42-47; 4,32-37),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열두 사도들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의 선교 활동과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둘째 부분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사도 8,4-11,18)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루카가 표방하던 ‘보편적인 구원’ 을 잘 드러냅니다.

셋째 부분은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입니다.(사도 11,19-28,31)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오로 사도가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되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선포했음을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의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바오로 사도의 활동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지 교회의 활동을 통해 보여 줍니다.

루카 복음이 전하는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여정은, 사도행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사도들의 활동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소중한 삶을 전하는 사도행전은 갈등역시 있었다고 말합니다. 15장에서 언급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러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겪었을, 작고 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함께 모여 회의를 했고,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는 ‘성령’ 역시 함께한 것으로 표현됩니다.(사도 15,28)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들이 사도들 역시 박해했음을 전해 주고,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넓은 의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죽음 역시 그 삶에 포함됩니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초대 교회의 삶에도 외부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있었으며, 내부의 갈등 역시 있었다는 사실은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루카 24,44 참조)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쟁야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9월2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해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노소피아(용례)
	연	조바오로(병철)	조바실리오
	연	이마리아(덕상)	이시몬(인학)
	연	양마리아(석순)	김엘리사벳
	연	양마리아(석순)	조마리아
	연	박가브리엘라	김데레사(정복)
	연	김라파엘	김데레사(정복)
	연	김중화	정데레사(해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해경)
	연	원용락	원프란치스코
	연	김두현	김케네스가족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꾸리아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은총의어머니Pr.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임루시아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박세레나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익명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익명
	생	본당신부님영명축일	익명
	생	구미카엘축일	은총의어머니Pr.
	생	김데레사(영자)축일	은총의어머니Pr.
	생	이아네스	이시몬
	생	김마리아(옥준)	자녀
9월30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10월 1일 수	연	양마리아(석순)	안나회
	생	팽데레사축일	하늘의문Pr.
	생	정데레사(진희)축일	김카타리나
	생	서데레사(춘애)축일	박세레나(동신)
10월 2일 목	연	분당선종연경	선종봉사회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최마티아(영식)	심미카엘(태규)
	생	이정우	전수산나
10월 4일 토	연	한국순교성인들	꾸리아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9	188	32	319
헌 금	\$672	\$1,028	\$37	\$1,737

< 교무금 > \$4,965

이현옥(1-12) 정기환(9-12) 염명련(8-9) 정창희(9)  
정일양(9) 유춘성(7-8) 유경돈(7-8) 송인환(8-11)  
이종주(4-9) 이세호(1-10) 이흥구(9-10) 김현수(9)  
김용식(9-10) 허석진(5-9) 이인학(7-9) 정우송(11)  
김범식(7-12) 임희숙(7-9) 최윤기(8-9) 김관수(9-10)

< 성소후원금 > \$70

정창희(9) 김용식(9-10) 최윤기(8-9)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은 신부님 영명축일로 전신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항 -

◆ 전례안내 : 본당의 날 10월 5일에는 8시 미사가 없습니다. 11시 합동미사로 봉헌됩니다.

◆ 10월 목주기도성월을 맞아 미사 전 목주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시작합니다.

◆ 성시간 : 10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 환자봉성체 : 10월 3일(금)

◆ 성모신심미사 : 10월 4일(토) 아침 7시 30분  
- 꾸리아 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10월 3일(금) 저녁 9시 ~ 10월 4일(토) 아침 7시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이 9월 29일입니다. 오늘 미사 후 친교시간이 있습니다.

◆ 2차 현금 안내  
10월 5일(다음주) : Catholic Voice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구역장회의 : 9월 2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서중부 제19차 전체 울드레아  
일시 : 10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 : 산호세 한국순교자 성당  
참가를 원하시는 꾸르실리스따님들은 연락바랍니다.  
Shuttle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해드립니다.  
연락 및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2015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510-553-9434

◆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무장의 휴가 관계로 평일에는 사무실을 열지 않습니다. 토/일요일은 대체 근무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3-14장

|       |             |                 |
|-------|-------------|-----------------|
| 5 구역  | 9월28일(일)식사후 | 대건회관            |
| 8-1구역 | 9월28일(일)미사후 | 박일신 바실리오(106호실) |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홍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오늘 성모회에서 도토리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 대천사 축일(9/29) :  
심태규 미카엘, 이종규 미카엘, 육창우 미카엘,  
구창희 미카엘, 권창모 미카엘, 신정은 미카엘라,  
이용금 미카엘라, 김철우 가브리엘, 최정안 가브리엘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 \* 소화 데레사(10/1) : 정혜경, 김승희, 정진희, 황혜정  
김정복, 박영실, 전숙희, 김영자, 배영옥, 윤덕림,  
서춘애, 유춘성, 전운자, 팽정숙
- \* 프란치스코(10/4) : 흥흥기, 원광희, 김범식, 양주석  
이회인, 정일환, 조경호, 허석진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10월 11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  
<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  
장소 : Quarry Lakes(Fremont)